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tive of Escape from the North Korea and the Life Situation of Female Fugitives in China*

- based on the Interview with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in Yenben Province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소비자·의류학과

객원 학자 김지희

존스 홉킨스 대학교 난민문제 연구소

교수 이명근

Dept. of Consumer Studies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Sook Jae Moon

Dept. of Consumer & Textile Science The Ohio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Ji Hee Kim

Center for Refugee and Disaster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ofessor : Myung Keun Lee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연구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North Korean fugitives is one of various nominations referring to the North Koreans who have secretly crossed the territorial border of their country. It is a new terminology that has gained wider usage in our

* 본 연구는 1999년도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society as we entered the 1990s. North Koreans list various motives for escaping their country, such as food shortage and disillusionment of belief in the system. Most of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takes place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family life of female fugitives from North Korea in order to provide pertinent alternatives which are needed to secure basic human right of the female fugitives and enable them to keep stability of their family lives and to adapt themselves into new socio-cultural circumstances in China. For this, the preliminary survey performed to examin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female fugitives; to find out the incentives and channels of their escape out of North Korea; to investigate what types of family life and family relationship they manage in China; to grasp their problems and need of family life in adaptation into Chinese society.

The specific questions for grasp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fugitives are composed of age, education level, residential district in North Korea. In order to find out main causes and influential factors of their escape from North Korea, the following questions are included: what the most important incentives and motives are; the frequency of escape; and whether they discuss their escape with their family or not. The questions to find out their present actual life situations in China are about difficult things to adjust in China, family life, relationship with husband, and their conversational diction, the degree of their mastering the chinese language, the degree of their adaptation to chinese way of living, and so forth, which reveal to what extent they are adapted themselves to new cultural situation in China.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through face-to-face personal interview from July to October, 1999 Yenben province along the China-North Korea border. Data from 202 female fugitive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This study uses the SAS PC program for windows, Ver. 6.12 to analyze the data such as the distribution of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o on.

The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follows; the most principal motive of North Korean women's escape to china is to eat to live because of famine. Concerning the year when the fugitives escape from North Korea, all of the interviewees have escaped since 1990. After escape their continual contact with their family in North Korea, 81.7% of the respondents have not been in touch with their family. The main reasons for their not contacting with their family in North Korea are that it is not helpful although they contacts with their family. Female fugitives from North Korea have difficulties in life. They have rather stable relationship to their husband, but they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other aspects of family life. Their main difficulties are largely from their relationships to husbands' family members, and from the problems relate to their family in North Korea, and their children.

Based on this study, further research has to present supportive policies that help North Korean female escapees live without being deprived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program to help their efficient social adaptation has to be continued without stop together.

I. 문제의 제기

19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수해로 인한 북한 식량난 및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가동중단에 따른 경제의 악화는 적어도 북한 주민 3백만명이 굶어 죽었다고 추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인들의 망명 및 탈출은 한국보다 쉽게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중국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북한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탈북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하는 중국 사정으로 볼 때, 목숨을 건 탈출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으로 탈출이 성공할 경우 추방의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중국으로의 탈출은 성공했다 할 지라도 언제든지 잡혀서 북한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위협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탈북자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 모두 탈북자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탈북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 자치주로의 탈북자의 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자와 어린이들의 경우 먼 곳으로의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북한 여성들이 조선어가 사용되고 있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연변지역에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의든 타의든 일단 중국으로 넘어오게 될 경우, 이 순간부터 탈북 여성들은 북한에서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 공안국에 보고될 경우 북한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상황과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이 돌아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탈북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탈북 여성을 붙잡아 결혼을 하지 못한 중국 농촌 총각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중국인과 북한인 사이의 거래에 의해 북한여성의 자유의 사와는 상관없이 중국으로 팔려오는 여성들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 여성들은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하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며, 임신을 할 경우에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자녀를 중국인으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제외된 상태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요인 이외에도 현재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독특한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탈북 여성들이 새로운 중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탈북 여성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변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 숨어살면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탈북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가 이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탈북 여성들의 실태 및 중국에서의 생활상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관점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에서 북한 여성의 사회적응문제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중국-북한 국경지역, 특히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현재 중국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탈북동기 및 탈북경로, 탈북 후 중국에서의 생활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중국 지역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와 같은 탈북 여성들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새로운 중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탈북 여성들이 중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탈북 여성들의 생활상의 요구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한 본 연구결과는 중국거주 탈북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에서 탈북 여성의 사회적응 문제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탈북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상의 실태 및 가정생활을 연구함으로써 현재까지 주어진 보도자료를 인용한 제한적인 연구나 남한으로 탈출한 몇몇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비해 보다 실제적인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II.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북한 식량난으로 발생한 탈북난민 발생단계 및 중국 연변지역 및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 탈북자들의 규모 및 실태파악을 통해 중국 거주 탈북자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식량위기와 탈북자 발생단계

1) 제 1기 : 1993년 10월 - 1994년 10월

북한에서는 1993년도에 주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부지역에서 먼저 식량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해서 94년 가을에는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로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식량조달을 목적으로 비교적 식량사정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량 구하러 다니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식량 구하러 다니기'는 우선 함경북도의 양강도 주민이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로 이동하고, 다음은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주민이 황해북도로 이동하는 형태가 전국화 되었다. 식량조달의 주요한 방법은 생활필수품(공업제품)을 식량과 바꾸는 것이다. 단 이 시기에는 중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돈이나 원조물품을 받아서 북한으로 돌아오는 형태였다.

2) 제 2기: 1994년 11월 - 1995년 10월

이 시기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일부에서 대량 강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규모 식량부족은 이 홍수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파탄이나 소련이나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이에 따른 원조의 감소 등의 누적효과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홍수피해는 식량부족의 부차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황해남북도의 농민은 협동농장과는 별도로 텃밭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여기에서 나온 잉여식량을 가지고 제 1기 '식량 구하러 다니기' 주민을 지탱해 주고 있었다. 텃밭면적은 한 세대 당 200-1000 평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시

기의 홍수피해는 겨우 지탱되어 왔던 취약한 잉여식량의 원천을 박탈했다. 이로 인해 이 시기 이후에는 그 동안 이루어졌던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 월경 이상의 탈북 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중국내에서 숨어서 살아가려는 목적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국 국경지역의 조선족 농민들은 탈북 난민들을 자주 접하게 된 것은 1995년 말경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3) 제 3기: 1995년 11월 - 1996년 말

중국으로의 탈북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 이후이다. 이 시기의 식량위기는 심각해져 갔으며, 노동당에 의한 식량정책 및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권층의 잉여식량이 암시장에 유통되고 암시장에서의 식량가격이 전국적으로 고가로 안정된 결과(옥수수 1Kg=70-80원으로 노동자 평균 월급을 넘는 다), 제 1기 '식량 구하러 다니기'가 기능을 상실했다. 이러한 결과 빈부의 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부랑자가 급증되기 시작했다. 특히 텃밭이 없는 도시의 주민이나 중국제품의 입수가 어려운 동해쪽 공업도시의 노동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식량위기가 유통시스템을 매개로 기아현상으로 전환되고 탈북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4) 제 4기 1997년 초 - 현재

이 시기는 탈북자의 급증기에 해당된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농민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증가율은 1997년은 1996년의 10배, 98년은 97년의 약 10배정도로 양적으로 급증하였다. 제 3기 이후 국제적인 식량구호가 본격화되었지만 일반 노동자들이 식량원조 혜택을 입을 가능성은 극히 적은 편이다. 일반 북한주민이 식량 공급원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을 막론하고 신의주, 혜산, 온성, 회령, 무산 등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입수하는 국경에 접해있는 지역뿐이고, 황해남·북도 등은 곡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어 잉여식량의 산출조차도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전 시기까지 탈북자의 수가 전반적

으로 함경북도에서 최대다수를 차지했으나 1998년 이후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탈북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2. 중국 거주 탈북자의 실태

지난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국경지대에서 '식량난민'으로 떠돌기 시작한 지도 이미 수년이 지났다. 중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나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의 연변지역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함경북도와 접하고 있어,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두만강을 넘어 연변지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연변 자치주의인 용정, 화룡, 연길, 도문 등에 밀집되어 있으나, 일부는 중국내륙 지방에까지 퍼져 은신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현황과 실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얼마 동안이나 머무는지, 어느 지역에 까지 이동하는지,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어떠한 종류의 것들인지,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탈북 주민들의 상황은 열악한 생활조건, 무시되고 있는 기본 인권, 유민색출과 송환에 따라 위협받는 생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탈북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침해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매매혼 형태로 이루어지던 여성들의 탈북이 인신매매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 남자와 생활하는 여성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탈북자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식량난민'들은 보호를 받기는커녕 존재조차 부정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체포될 경우 북한과 중국의 공안 당국에 의해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계된 「중·북한

탈주자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 지역 업무 협정」에 따라 강제 송환된다. 그러나 1993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북한 국경에 대한 통제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중국 공안 당국의 강제송환은 1993년 11월 「길림(吉林) 변경 관리 조례」가 통과된 이후 크게 늘고 있다. 1994년-1995년 동안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탈북자 수는 약 140명에 달하고 있다(동아일보, 1996. 12. 26). 북한으로의 송환규모는 중국 측의 단속강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은 1998년 7월 이후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어 송환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공개처형 당하게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발각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신변의 위협속에서도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탈북자들 중 가장 심각한 인권 피해자들은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출한 북한 주민 4명 중 3명은 여성이며, 특히 연변 등 동북 3성 지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여성이 9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법륜, 1999). 탈북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북한에서는 여성들에게 식량을 구하는 책임이 있는데다가 인신매매 조직이 탈북과정에서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은 중국의 농촌 총각들과 필요에 의해 동거하거나, 매춘에 이용되고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탈북 여성들의 인권보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신분상 불안으로 은신해 있거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모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제까지 정확한 공식 집계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토대로 한 추정치가 발표되어 왔으며, 정부 관계자와 민간단체 실무자의 추정치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민간단체들의 현지 실태조사 및 활동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표집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고, 소규모 면접자를 통한 자료수집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동북부 지역의 현지조사에 기초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는 지역별 탈북자의 비율, 탈북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거주형태, 생활유형 등 북한 탈북자의 생존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내 29개 시, 현에 속한 2479마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1998. 11. 16 - 1999. 4. 3)를 통해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자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연변지역을 포함한 동북 3성 지역의 현재 탈북자수는 최소 14만명, 최대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거주기간은 3개월 이하가 50.3%(연변 74.6%, 동북 3성 19.4%), 6개월 이상이 28.8%(연변 11.4%, 동북 3성 48.8%)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여 단기간 머무르는 '식량난민'에 해당되지만 일부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자 비율이 높다. 북한으로부터 먼 동북 3성 지역일수록 장기체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 중 여성비율이 74.1%, 남성이 24.0%이고, 연변지역의 탈북자 중 여성 비율은 62.2%를 차지한다. 연령은 20-30대가 60.4%를 차지하고, 40대가 23.7%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형태 중 결혼이 51.9%를 나타내고, 37.4%는 모르는 사람과 거주하고 있다. 탈북자 중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여성은 생존을 위해 불법 결혼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하여 강제로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상태가 아니라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로서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일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탈북자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인 통상임금의 30-50%를 받고 일하며,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약속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결혼이나 친인척의 보호를 받는 탈북자들은 일하지 않고, 집안일 등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일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중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을 해주고, 하루 또는 한달 단위로 약간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표 2〉 성별에 따른 연변 및 동북 3성 지역의 탈북자의 수 (N=28,472)

지역	성별	탈북자 수(명)	백분율(%)
연변 조선족 자치주	남	5,666	36.5
	여	9,338	60.1
	무응답	521	3.4
	소계	15,525	100.0
동북 3성	남	1,175	9.1
	여	11,762	90.8
	무응답	10	0.1
	소계	12,947	100.0
총 계	남	6,841	24.0
	여	21,100	74.1
	무응답	531	1.9
	소계	28,472	100.0

자료원 :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1999)

〈표 1〉 연변 및 동북 3성 지역의 탈북자의 수 (N=28,472)

지 역	총주민수(명)	조선족 주민수(명)	탈북자 수(명)	탈북자 비율(%)	
				총주민기준	조선족 주민기준
연변 조선족자치주	829,582	416,236	15,525	1.9%	3.7%
동북 3성	822,598	259,329	12,947	1.6%	5.0%
총 계	1,652,180	675,565	28,472	1.7%	4.2%

자료원 :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1999)

이들이 하는 일은 일반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힘들고 지저분한 일들로서, 예를 들면 도시에서의 석탄 보일러 관리, 간병인, 보모, 식당 종업원, 뜨개질, 물 걷기 등의 일과 농촌에서는 분뇨처리, 비닐 걷기 등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보호하다가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쉽게 일을 시키려 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받는 돈은 중국사회의 통상임금(약 500위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약 150-250위안)가 대부분이다. 일을 해주고 숙식만 해결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약속을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주인에게 강하게 요구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 이 경우

탈북자들은 북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생활하지 못하며, 돌아가지도 못하고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체계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일대일 면접 조사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현재 중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탈북동기 및 탈북당시 실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과 도움의 유형 등 탈북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탈북 후 중국에서의 가정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탈북 여성들의 중국생활상의 적응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방식은 문항의 성격에 따라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2. 조사대상 및 표집

자료의 수집은 1999년 7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질문지 문항 및 문항 양호도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1999년 1월 중국거주 탈북 여성 10명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문항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질문지의 문항 및 적절한 언어의 선택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및 조선족 전문가들의 문항내용 검토를 거쳐 문항의 내용 및 언어의 선택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용어에 적절한 언어로 수정되었다.

중국지역에서의 면접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 및 탈북자 중 사회조사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연구인 10명을 중심으로 실시되

<표 3> 연령에 따른 연변 및 동북 3성 지역의 탈북자의 수

(N=28,472)

탈북자의 연령	탈북자 수(명)	백분율(%)
10대 이하	770	2.7
20대	8,273	29.1
30대	8,851	31.3
40대	6,756	23.7
50대	2,531	8.9
60대 이상	735	2.6
무응답	556	2.0

자료원 :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1999)

<표 4> 연변 및 동북 3성 지역의 탈북자들의 생활유형 및 거주형태

(N=28,472)

생활유형 및 거주형태		탈북자 수(명)	백분율(%)
탈북자들의 생활유형	일하지 않음	19,670	69.1
	일하고 있음	8,591	30.2
	지원금을 받음	5,078	17.8
	숙식만 해결	3,513	12.4
	무응답	211	0.7
탈북자들의 거주형태	친척, 아는 사람	3,051	10.7
	모르는 사람	10,769	37.4
	결혼	14,769	51.9
	무응답	10	0.0

자료원 :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1999)

었다. 이들 면접자들은 면접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한 사전훈련을 받은 후 일대일 면접에 착수하였다.

전체 210명에 대한 면접이 실시되었으며, 응답자가 면접에 부실 응답한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8명을 제외한 202명의 탈북 여성에 대한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AS PC 프로그램, Ver. 6.12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인 통계치가 주로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및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 탈북 여성들의 연령은 20대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6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25.2%), 40대(10.9%)의 순이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54.5%였고, 20대가 20.3%, 40대가 10.3%, 50대가 4.5%로 나타났다. 현재 남편의 민족을 파악한 결과 조선족이 전체의 71.8%로 가장 많았으며, 한족(17.3%), 북조선인(1.5%)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수준은 면접자의 73.7%가 중학교 졸업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이상이 20.3%를 차지하였다. 인민학교 졸업 및 그 이하는 전체 면접자의 3.0%로 면접자들의 교육수준은 중간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초중졸업이 61.9%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18.8%), 연구생이상(9.9%), 소학교 졸업이 9.4%로 나타나 남편들의 교육수준은 탈북여성과 비교하여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탈북전 북한에서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함경북도 지역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으며, 함경남도가 11.4%로 전체 탈북자들의 78.2%를 차지하였고, 평안도(7.4%), 황해도(4.0%)의 순으로 나타나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

<표 5> 조사대상 탈북 여성 및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N=202)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탈북 여성의 연령	10 대	4	2.0
	20 대	124	61.4
	30 대	51	25.2
	40 대	22	10.9
	50 대	1	0.5
배우자의 연령	20 대	41	20.3
	30 대	110	54.5
	40 대	21	10.3
	50 대	9	4.5
	무응답	21	10.4
배우자의 민족	조선족	145	71.8
	한족	35	17.3
	북조선인	3	1.5
	기타	19	9.4
북한에서의 탈북 여성의 교육수준	인민학교 졸업	6	3.0
	중학교 졸업	149	73.7
	중학교 졸업 이상	41	20.3
	무응답	6	3.0
배우자의 교육수준	소학교	19	9.4
	초중졸업	125	61.9
	고졸	38	18.8
	대학 및 연구생 이상	10	9.9
탈북전 북한에서의 거주지역	함경북도	135	66.8
	함경남도	23	11.4
	평안북도	3	1.5
	평안남도	12	5.9
	황해도	8	4.0
무응답	21	10.4	
현재 중국에서의 거주지역	연길	11	5.4
	도문	21	10.4
	용정	7	3.5
	안도	48	23.8
	돈화	29	14.4
	길림	9	4.5
	흑룡강	55	27.2
	기타	22	10.9
탈북연도	1991 년	1	0.5
	1995 년	1	0.5
	1996 년	8	4.0
	1997 년	78	38.6
	1998 년	95	47.0
	1999 년	17	8.4
	무응답	2	1.0

의 탈북이 보다 용이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의 거주지역은 흑룡강 주변이 가장 많았고 (27.2%), 안도(23.8%), 돈화(14.4) 지역 등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가까울수록 탈북 여성들의 숫자가 많았다.

탈북 여성들의 탈북연도를 살펴보면, 면접대상자 전원 모두 1990년 이후에 탈북하였으며, 1998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전체 탈북자의 47.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1997년으로 38.6%, 1999년이 8.4%의 순으로 비교적 최근에 탈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탈북동기 및 탈북상황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탈북 실태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탈북동기, 탈북횟수, 탈북 후 중국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의 유형, 탈북사실에 대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 탈북 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 유무, 탈북 후 북한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지원의 종류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1) 탈북동기 및 탈북횟수

현재 중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주요 탈북동기 및 탈북동기의 우선순위(복수응답)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탈북 여성들의 가장 큰 탈북동기는 배가 고파 먹고 살기 위해서(81.7%),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75.2%), 북조선에 있는 가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50.5%), 같이 탈북할 사람들이 있어서(37.1%), 중국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15.8%), 부모나 형제,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8.4%)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장 주된 탈북동기는 북한에서의 식량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북횟수 및 탈북 후 붙잡힌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탈북횟수를 조사한 결과 현재 탈북한 것이 1회(85.1%)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회(7.3%), 3회(1.5%), 4회(0.5%)의 순이었고, 본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5.4%로 나타나 탈북문제 자체가 탈북 여성들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탈북 후 붙잡힌 적이 있는가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붙잡힌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7%였고, 48.5%의 응답자들은 붙잡힌 경험이 없었으며, 응답자 중 27.8%는 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회피하였다. 붙잡힌 경험이 있었던 여성들 중 북으로 호송된 적이 있었던 경우가 5.0%, 나머지 응답자들은 북으로 호송된 경험은 없었으나, 북조선 조교에게 잡혀갔다가 도망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 중국인에게 잡혀갔다가 도망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0%, 중국인에게 잡혀서 중국인 남자에게 팔려가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8%로 현재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를 경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6> 탈북동기의 우선순위

(N=202)

순위	탈북 동기	빈도(%)*	백분율(%)
1	배가 고파 먹고 살기 위해서	165	81.7
2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	152	75.2
3	북조선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2	50.5
4	같이 탈북할 사람들이 있어서	75	37.1
5	중국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32	15.8
6	부모나 형제,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17	8.4
7	빚 때문에	8	4.0
8	중국으로 오는지 모르고 팔려옴	1	0.5

* 중복응답으로 인해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2) 탈북 후 북한내 가족들과의 관계유지 및 지원실태

탈북 후 현재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유지 및 지원실태를 파악하였다.

탈북사실에 대해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알고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탈북 전부터 지금까지 탈북사실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35.6%)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탈북전에 이야기했다(27.2%),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소문을 통해 알고 있으리라 짐작된다(18.3%), 가족이 모두 탈북했으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81.7%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탈북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연락을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락을 해 봤자 도움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36.4%),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32.7%),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12.7%)등이 주원인이었다.

탈북 여성들은 자신들의 신분노출이나 불잡힐 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탈북 사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탈북 여성들은 실제로 북한의 가족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싶으나 실제로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탈북후 북한내 가족들과의 관계유지 및 지원실태

(N=202)

탈북 후 북한내 가족들과의 관계유지 및 지원실태	빈도(명)	백분율(%)
탈북사실에 대해 북한내 가족들이 알고 있는가의 여부		
탈북전부터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72	35.6
탈북전에 이야기해서 알고 있다	55	27.2
탈북 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37	18.3
가족이 모두 함께 탈북했으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	28	13.9
탈북후 가족들에게 알렸다	6	3.0
무응답	4	2.0
탈북 후 북한내 가족들과 연락 지속여부		
탈북후 북한내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165	81.7
탈북후에도 북한내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	26	12.9
무응답	11	5.5
탈북 후 북한내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		
연락을 해 봤자 도움을 줄 것이 없으므로 연락하지 않는다	60	36.4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54	32.7
연락하지 않기도 사전에 합의했다	21	12.7
가족들과 함께 있으므로 연락할 필요가 없다	14	8.5
연락할 가족이 없다	6	3.6
무응답	10	6.1
탈북 후 북조선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물품		
옷	40	19.8
돈	21	10.4
약	11	5.5
식량	8	3.9
편지 및 기타 물품	20	9.9
지원을 하지 못함	102	50.5

* 해당사례만 분석하였음

중국으로 탈북한 후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물품의 지원은 옷을 지원한 경우(19.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돈(10.4%), 편지 및 기타물품(9.9%), 식량(3.9%)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중국에서의 탈북 여성들의 생활실태

중국거주 탈북 여성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결혼동기에 대한 일반적 정보, 탈북 여성들의 중국 생활상의 적응도, 생활상의 애로점 및 이들이 중국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로 하는 생활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따르는 문제점과 그들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실제로 탈북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탈북 여성들의 중국에서의 결혼 동기

현재의 남편과 함께 살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북에서 넘어온 후 불잡혀 팔려온 경우(33.2%), 갈 곳이 없을 때 중국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26.7%), 중국으로 넘어 온 후 스스로 현재의 남편을 알게 되

어서(8.4%) 등이었다.

탈북 여성들이 현재의 남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연도는 1998년부터가 전체의 46.5%로 가장 많았으며, 1997년(28.7%), 1999년(23.8%)의 순으로 나타나 최근에 동거나 결혼생활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함께 살고있는 남편의 결혼상태 여부를 보면, 총 각결혼이 전체의 64.4%로 가장 많았으며, 본 부인과 이혼 후 결혼이 17.3%였다. 또한 본 부인과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경우(10.9%)도 있었으며, 결혼의 상태가 아닌 동거의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응답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2) 중국에서의 일반 생활상의 적응도

현재 일반적인 중국생활에 있어서의 말투 고치기, 음식습관, 머리모양, 화장, 한어 배우기, 생활방식의 차이, 인간관계 처리방식, 신용회득, 금전사용 방식, 시장경제(자본주의 경제) 방식 등에 대해 탈북 여성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말투고치기, 음식습관, 머리모양, 화장등의 일반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적응은 '어느 정도 적응하였

〈표 8〉 중국에서의 결혼동기

(N=202)

항 목	빈도(명)	백분율(%)
현재 남편과 생활하게 된 동기		
갈 곳이 없을 때 중국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소개	54	26.7
북에서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이라 내가 찾아왔다	4	2.0
내가 탈북해 스스로 혼자 알게 되었다	17	8.4
중국사람에게 팔려왔다	67	33.2
기타	60	29.7
현재 남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년도		
1997년 이전	2	1.0
1997년	58	28.7
1998년	94	46.5
1999년	48	23.8
현재 남편의 결혼상태		
총각결혼	130	64.4
본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	22	10.9
본 부인과 이혼상태	35	17.3
기타	15	7.4

〈표 9〉 중국에서의 일반생활상의 적응도

(N=202)

생활 영역	완전히 적응	어느정도 적응	노력중이나 적응되지 않음	전혀 적응되지 않음	무응답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탈투 고치기	56(27.7)	88(43.6)	40(19.8)	10(5.0)	8(4.0)
음식 습관	94(46.5)	83(41.1)	13(6.4)	9(4.5)	6(3.0)
머리 모양	97(48.0)	75(37.1)	21(10.4)	6(3.0)	6(3.0)
화장	89(44.1)	78(38.6)	23(11.4)	6(3.0)	6(3.0)
생활방식 차이	22(10.9)	125(61.9)	30(14.9)	19(9.4)	6(3.0)
인간관계 처리방식	29(14.4)	123(60.9)	35(17.3)	10(5.0)	5(2.5)
한어 배우기	7(3.5)	40(19.8)	123(60.9)	27(13.4)	5(2.5)
신용 획득	40(19.8)	119(58.9)	33(16.3)	5(2.5)	5(2.5)
금전사용 방식	28(13.9)	122(60.4)	25(12.4)	14(6.9)	13(6.5)
시장경제 방식(자본주의경제)	27(13.4)	91(45.0)	20(9.9)	17(8.4)	47(23.3)

다' 및 '완전히 적응'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아 적응상의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여성들이 조선족이 살고 있는 연변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한어 및 새로운 중국문화를 습득하기보다는 조선족의 삶을 습득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한어 배우기로서 74.3%가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방식이 차이, 인간관계 처리방식 등이 적응을 잘하고 있는 다른 생활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경제 방식에 대한 적응정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58.4%정도가 적응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이에 대한 무응답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새로운 시장경제 방식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본인들이 자신들의 적응도 자체에 대해 명백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3) 중국에서의 가정생활상의 애로사항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리적 불안감, 의존적·폐쇄적 생활, 경제적 어려움, 자녀문제, 북한거주 가족관련 문제, 시댁 및 남편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

트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0). 본 연구는 실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후 겪게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나 가정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의, 식, 주 생활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3.0이상을 나타냄으로써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로서, 면접시 남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을 자주 구타한다고 진술하였다. 면접시 조사대상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북한에서의 생활보다 낫다고 진술하고, 현재의 남편이 자신을 매우 잘 돌봐 준다고 응답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중국에서의 가정생활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진술하였다. 탈북 여성들은 만약 붙잡혀서 북한으로 호송되는 경우 처형된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중국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 중국남자와 생활하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표면적으로는 남편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탈북 여성들이 경험하는 또다른 어려움은 의존적,

〈표 10〉 중국에서의 가정생활상의 애로사항

(N=202)

중국에서의 가정생활상의 애로사항		평균(표준편차)
심리적 불안감	언젠가 남편이 날 버릴까봐 불안하다	4.45(1.74)
	북으로 잡아간다는 소식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3.54(2.17)
	호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항상 걱정이 된다	4.26(1.77)
의존적, 폐쇄적 생활	남편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혼자서 할 수 없다	4.55(1.92)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	3.20(2.12)
	늘 집에 갇혀 사는 삶이라서 답답하다	3.73(2.20)
	밖으로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어서 힘들다	3.84(2.10)
경제적 어려움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 힘들다	4.20(2.04)
	북에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아 힘들다	3.84(2.01)
	돈을 벌 수 없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힘들다	4.29(1.74)
	몸이 아파도 남편이 돈을 쓰는 것이 미안해서 말을 하지 못할때가 있다	3.89(2.14)
자녀관련 문제	시댁가족 및 남편이 내게 경제권을 주지 않는다	3.47(2.29)
	자식을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한다	3.21(2.32)
	남편이 북한에서 태어난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한다	4.00(1.73)
북한거주 가족관련 문제	북한에서 태어난 자식을 정식으로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힘들다	4.12(1.71)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해서 항상 염려된다	4.06(2.32)
시댁 및 남편과의 관계	남편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답답하다	3.51(2.18)
	남편이 날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4.74(1.54)
	조선남자와 달리 남편의 생각과 문화가 틀려서 어렵다	3.89(2.33)
	시댁식구가 날 잘 믿지 못해서 힘들다	3.52(2.09)

폐쇄적 생활로서 남편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남편에게 보다 많이 종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 여성들은 새로운 중국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의존적이고, 신변적인 위협으로 인해 집안에만 갇혀 살아야 하는 매우 폐쇄적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상의 의존성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고, 경제적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심리적인 불안감으로서 언젠가 남편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법적으로 호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에서 태리고 온 자녀를 정식으로 학교에 보내어 교육시킬 수 없는 점, 중국에서의 새로운 가정생활을 통해 자녀를 낳고 싶지만 새로 태어나는 자녀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

는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외에도 자신의 탈북사실로 인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과 북한내 식량난의 지속에 따른 가족들의 식량문제 해결 등 북한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생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탈북 여성들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교단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중국에서의 생활상의 요구사항

현재 중국에서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면접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가장 많은 탈북 여성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기를 바랐으로써(87.1%) 탈북한 후 붙잡힐 것에 대한 불안감이 중국에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히 어려

〈표 11〉 중국에서의 생활상의 요구사항 (N=202)

생활상의 요구사항	빈도(%)
마음놓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176(87.1)
호구를 갖고 싶다	168(83.2)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다	134(66.3)
북조선의 가족을 지원해 주고 싶다	114(56.4)
자식을 낳고 싶다	60(29.7)
일을 하고 싶다	50(24.8)
돈을 벌어서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	33(16.3)
자식이 제대로 교육받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28(13.9)
북조선의 여건이 좋아지면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22(10.9)

중복응답으로 인해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운 요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들이 중국에서의 호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83.2%),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다(66.3%)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북조선의 가족을 지원해 주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자식을 낳고 싶다는 바램(29.7%)과 북조선에서 데리고 온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잘 살기를 바란다(13.9%)는 요구를 가지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 여성 및 이들 자녀들이 중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북한의 여건이 좋아지면 북조선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요구사항들은 앞에서 살펴본 중국 생활상의 애로사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교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해결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탈북동기 및 탈북실태를 알아보고, 중국에서 동거나 결혼 및 기타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

시되었다. 탈북 여성들이 새로운 중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적응상의 문제점 및 가정 생활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재 이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알아봄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사회에 보다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방안마련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202명의 탈북 여성에 대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탈북동기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탈북 여성들의 가장 주된 탈북동기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고, 그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심각한 식량위기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주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많은 수가 자신의 탈북사실에 대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탈북했으며, 현재 자신의 신분상의 안전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3국에서의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NGO의 역할 및 탈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조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중국지역으로 탈북한 여성들은 이미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 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 북한 가정의 심각한 해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 자식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탈북과 중국에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으로 북한과 현재 가정생활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북한에서의 결혼경험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탈북 여성들은 중국으로 넘어 온 후 중국인이

나 북조선인에게 붙잡혔던 경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매매를 경험한 여성들도 나타나 탈북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의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권보호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탈북 여성들이 중국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법적 호구를 획득하는 문제, 한어 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종교단체나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이한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에서의 가정생활 실태를 통해 본 결과 남편 및 남편의 경제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시대가족들과의 문제점, 폐쇄적 생활, 자유롭게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남편이나 주변사람들이 신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와 북조선에서 태리고 온 자녀교육의 문제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탈북 여성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탈북 여성들이 제 3국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탈북 여성들이 제 3국에서 상이한 문화와 체제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탈북 여성들의 적응문제는 단지 가정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총체적인 면에서 탈북 여성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 3국에서의 탈북자 보호활동에 대한 지원방

안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정부가 관련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입장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의 탈북자 보호활동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 정부보다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현지 실태조사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탈북자 자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관련국이 허용하기 전에 탈북자들에 대한 현지 보호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활동중인 민간단체들은 단기적 사업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현지국에서 탈북자들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반 사업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다른 국제기구들과 연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착지원시설(하나원)내에서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체계들을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제 3국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탈북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 3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효율적 방안중의 하나로 사료된다.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 안내, 직업 현장 체험, 한자, 시사용어 등 실생활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내용들을 민간단체들을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들이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 및 종교프로그램의 적용도 탈북자들의 제 3국에서의 적응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민간단체들의 탈북자 지원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선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양적인 증가와 탈북자 유형이 다양화되는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의 유형도 여성탈북, 아동탈북, 가족탈북 등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도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의 지원 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가정복지사들이 사회적 및 새로운 가족체계내에서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가족들이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내 갈등해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강광식(1987), 북한의 실태-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 공산권문제연구소(1972), 북한의 가정과 부녀자, 공산권문제연구소
- 3) 김성철(1984),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 4) 김애실(1996), 경제체제와 남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제 4차 통일문제학술세미나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비교” 17-29
- 5) 김병로(1994), 탈북자 발생배경분석, 통일민족연구원
- 6) 김선옥(1992), 북한의 여성생활, 북한의 여성정책, 「여성연구」, 10(3), 5-46
- 7) 남성옥(1999),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전망에 대한 소고 「북한연구」 제 2호,
- 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연구협동과정실, 북한연구회
- 9) 남인숙(1992), 남북한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신문사
- 10) 문숙재(1994), 북한의 여성과 가정생활, 「여성학논집」 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11) 박완서 외(1991), 북한사람, 북한가정, 북한사회,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 12) 변화순(1992), 남북한 가족의 다른점과 닮은점, 「여성연구」, 10(3), 195-204
- 13) 법륜(1999), 북한 식량난민 실태 및 인권보고서, 조선일보.
- 14)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1999), 「북한땅에 인권의 빛을」,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 15)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1998. 11-1999. 4), <http://www.jungto.org>
- 16) 서동익(1991), 북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일생,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 17) 손봉숙외(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 18)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1998), 북한식량난 실태: 북한식량난민 169명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 19) 윤재근 외(1991), 북한의 문화정보 I, 고려원
- 20) 이은숙(1989), 북한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21) 한국여성개발원(1992), 북한여성의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22) 한국여성연구원(1999), 북한의 식량위기와 여성, 제 7차 통일문제학술세미나 자료, d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